

세계 최고 지성과 함께한 위대한 여정 EBS <위대한 수업> 시즌 4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디디에 쿠엘로
외계행성의 발견자

존 미어사이머
공격적 현실주의

애나 랭키
<도파민네이션>

조앤 윌리엄스
초지능성 평가

마이클 루스
기독교와 진화론의 화해

세스 고딘
<보잘것 없는 소가 온다>

리처드 랭엄
하버드대 인간진화생물학과 교수

그레이엄 하먼
'객체지향 존재론'의 창안자

판베이첸
삼국지 전문가

앤터니 비버
제2차 세계 대전 최고의 전문가

존 미어사이머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명예교수

카스 무데
포틀랜드, 극우정치 전문가

마크스 브루너 마이어
<외복 탄력 사회>

대럴 더피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재무학 교수

레오니 허디
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 정치학 교수

하타노 스미오
일본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켄틴 스키너
게일브리지 학파의 창시자

왕보
중국 북경대 부총장

미하엘 초코스
세계적인 과학수사 전문가

카를로 로벨리
루프양자중력 우주론 대가

토마스 헤더윅
영국 디자이너 겸 건축가
대영제국 훈장 CBE(2013)

프로그램 소개

2021년 첫 방송부터 한국 방송 사상 역대급 출연진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시즌 1, 그리고 ‘노벨상 향우회’라는 찬사를 받으며 역대 최다 노벨상 후보자들의 강연을 선보인 시즌 3까지, 시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식·교양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지식 사회를 이끌어 왔던 <위대한 수업>이 2024년 가을 개편과 함께 시즌 4로 방송 중이다.

EBS <위대한 수업>은 공영방송의 위기 속에서도 ‘수신료 70원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폴 크루그먼, 주디스 버틀러, 제인 구달, 록산 게이 등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총, 군, 쇠’의 재러드 다이아몬드,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스트리밍 시대의 영화’와 마이클 샌델의 ‘공정을 말하다’와 같은 고품격 강연을 국내 어디서나 무료로 제공하며 대중에게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전달해왔다.

이처럼 모든 시즌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강연을 담아 화제를

불러왔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특히 프로그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촬영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과학철학의 대부인 마이클 루스 교수와 인지와 심리철학의 개척자인 대니얼 대닛 교수의 경우는 특별히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생물철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과학철학자로 특히 다윈과 진화론 연구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루스 교수는 촬영팀이 방문했을 때 인공호흡장치를 달고 있었다고 한다. 예상외의 모습에 놀란 제작진은 고민 끝에 이번 촬영은 접고 다음번에 촬영할 것을 루스 교수에게 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스 교수는 산소호흡장치를 단 상태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은 채 끝까지 열정적인 강연을 진행해서 제작진에게 감동을 안겼다.

또 다른 과학철학자이자 인지철학의 거장인 대니얼 대닛 교수와의 촬영은 제작진에게 특히 가슴 아픈 경험으로 남았다. 촬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하던 제작진은 수 소문 끝에 그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안타깝게도 대닛 교수는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현대 과학철학

을 대표하는 학자로, 시즌 1부터 무려 4년에 걸쳐 공들여 섭외 끝에 겨우 촬영 허락을 받았던 만큼, 제작진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두 교수의 촬영을 담당한 허성호 PD는 “고령의 전설들을 촬영하면서 인생은 유한하지만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분들이 남긴 업적은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며 제작에 임하게 된다”면서 “<위대한 수업>이 어찌면 세계 석학들의 마지막 수업을 촬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위대한 수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위대한 수업> 시즌 4에서는 세계 최고 석학들의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기, 초저출생 문제, 정치적 양극화, 극우 세력의 부상 등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위기들에 대해, 석학들이 제시하는 심도 깊은 해법과 통찰을 만나볼 수 있다.